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김 영 주

대진대학교

〈요 약〉

인간은 교육을 통해 많은 변화가 가능한 존재이다. 특히 수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의해 인간이 성장·변화할 수 있다면, 교육은 인간의 성장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제 획일화된 교육, 왜곡된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본래의 뜻에 부합하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제일선에 대안교육이 있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을 밝히기 위해 대안교육이 무엇인지와 대안교육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안교육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순진리회 대안교육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해원상생(解冤相生)과 인존(人尊)사상을 들 수 있다. 해원상생은 종단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종지 중 하나로써 종지 전체를 대표하는 이념이며 신앙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실천이념이다.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은 대립과 갈등 관계에서의 교육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건설하고자 하는 실천이념이다.

인존은 인간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천지인 삼계의 전체구조 속에서 인간이 자기완성을 통하여 삼계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인간상이다. 증산은 ‘인존’을 통하여 새로운 우주관과 함께 인간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명제를 강조한다. 인존사상은 학생을 단순히 교육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지니는 존엄성을 존중하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학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면, 학급당 소수의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교실이 될 것이며,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코치형 교사가 담당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다.

핵심 주제어: 대순진리회, 대안교육, 해원상생, 인존, 다문화교육, 코치형 교사.

I. 서론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진이 있다. 입시설명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사진이 그것이다. 대학입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바이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주도권을 넘겨준 지 오래이며, 이로 인한 기현상들이 만연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철이 되면 모두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역대 정부 또한 이러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한 것 같다. 그나마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통과하기 위한 사교육이 존재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논술시험 관련해서 1회 상담 받는데 상당한 액수의 상담비를 내야한다고 한다.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더욱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성적지상주의, 입시위주로 치닫는 교육현실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교실붕괴는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학교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학생들의 인성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다보니 심지어 학교무용론(學校無用論)까지 대두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은 무수한 변화가 가능한 존재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받아들이는 측면에서의 능력이 탁월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성장을 의미한다면, 교육은 인간의 성장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제 획일화된 교육, 왜곡된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본래의 뜻에 부합하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제일선에 대안교육이 있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순진리회에서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 이에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대안

1) 매 학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캠프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안교육의 일부분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캠프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참여학생들간의 상호활동을 중심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교육이라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논의되어지고 있는 대안교육이 입시위주의 현행 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는 의미에서의 대안교육이기 때문이며, 방향을 이용하여 진행되어지는 캠프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초·중·고 캠프는 2박3일 일정으로 자연과 호흡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취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순진리회의 신앙교육은 별도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교육과 관련한 시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교육현장에서 대안교육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대순진리회 대안교육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교육현장에서의 대안교육의 의미

우리 교육에서 ‘대안교육’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이후 대안 교육에 관심을 가지거나 실제로 참여하는 교육기관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교육’이라는 용어자체가 처음부터 뜻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기존의 학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실험학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자유학교’ 또는 ‘대안학교’라고 불렀던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²⁾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변화를 일컫는 용어로 출발한 대안교육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준 또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³⁾ ‘대안’이라는 용어 속에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을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대안교육’은 실제 교육 현장이나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일컫는 말로 개념적인 표현이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실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변화는 기존의 방식과 내용의 교육이나 학교로는 안 된다는 강한 비판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⁴⁾ 대안교육이 말하는 ‘대안’은 ‘기존의 교육’과 그저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교육이 터하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나 인간관·자연관·사회관·세계관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의 선택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교육’이 아니며, 따라서 대안 교육운동은 이러 저러한 일련의 ‘교육개혁안’들과 질적 차별성을 갖는다.⁵⁾ 여기에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쇄신을

2) 김병길·황금섭, 『대안교육에 있어서 ‘대안’의 범주화』, 『교육철학』제19집(경남진주: 한국교육철학회, 2001), 3쪽.

3) 7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대안학교의 명칭들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독일에서는 흔히 “자유학교”(Freie Schule)라고 부르고, 덴마크에서는 “작은학교”(Lilleskoler),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유” 및 “대안”외에 “활동적”, “민주주의-창조적” 또는 “협동적”이라는 수식어들이 사용된다.(김명신, 『대안교육』(서울: 문음사, 2003), 14쪽.)

4) 이병환, 『한국 대안학교의 특성분석』(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4쪽.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의 바탕이 되는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고병헌이 밝히는 대안교육은 첫째, 대안교육이 미래지향적·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둘째, 대안교육은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린 ‘작은학교’를 지향하며, 셋째, 교육주체의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넷째, 이론보다는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섯째, 대안교육은 우리 삶과 교육에 있어 주체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 이는 ‘대안교육’의 이론적 측면 보다는 대안교육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운동의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색되는 새로운 교육을 대안교육⁷⁾이라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철학을 창출하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관계 방식의 타당성을 우리 모두에게 설득하는 것이며, 나아가 바로 그 가치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 방식에 녹아나게 하는”⁸⁾ 것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고병헌의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래된 교육의 새 꿈을 실현하려는 교육적 상상력, 그리고 이를 실천으로 담아내려는 구체적 전망의 표현으로써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려는 사회운동”⁹⁾, “성적지상주의에 바탕을 둔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공동체적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실천운동”¹⁰⁾으로 평가되는 대안교육은 공교육 위기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이념이나 목적, 교육내용과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주체와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개인이 지니는 세계관이나 인간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대안은 자칫 대안의 의미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대안을 범주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는 대안교육의 성격을 규명함과 아울러 대안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길·황금섭은 대안의 범주화작업의 일환으로 ‘대안적 패러다임’의

5) 고병헌, 『교육개혁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운동』, 『처음처럼』(통권 제4호)(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9쪽.

6)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서울: 내일을 여는책, 1997), 17-30쪽.

7) 이종태(1999), 『대안교육의 철학적 기초 탐색(1):생태주의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제26권 제1호, 15-16쪽.

8) 고병헌, 앞의 글, 103쪽.

9) 정유성,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53-54쪽.

10) 이병환·김영순, 『대안교육의 실천과 모색』(서울: 학지사, 2009), 61쪽.

제시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패러다임은 시장적 패러다임이다. 시장적 패러다임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선택권이나 학교선택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교’에 대한 논의들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생태주의 패러다임이다. 생태주의 패러다임은 20세기 후반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류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즉 생명 현상에서 삶의 원리를 깨우치고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배우고 자연계의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하며,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공동체임을 인식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¹¹⁾

세 번째는 보완적 패러다임이다. 기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중도 탈락자와 비인간화 문제의 역기능을 보완하거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보충하는 측면에서 ‘대안’적 범주를 모색하는 대안교육이다.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독자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기존 공교육에 대하여 이념적 성향이나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독특한 교육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이 그것이다.¹²⁾

이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패러다임은 실제 대안교육의 현장에서는 중첩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지향점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장적 패러다임과 보완적 패러다임은 대안교육을 기존의 공교육처럼 교육의 가치지향이라는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생태주의 패러다임과 독자적 패러다임은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문명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 문명사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즉 교육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인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논의되는 대안교육은 대순사상의 세계관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생태주의적 패러다임과 독자적 패러다임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11) 생태계의 위기가 이처럼 심각하게 나타난 원인은 첫째, 자연에 대한 침탈과 파괴를 당연시하는 서구인들의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둘째, 과학적 낙관주의에 빠져 자연 순환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해 과학 기술을 남용했던 인간의 오만함 때문이며, 셋째,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이에 부응하는 무절제한 소비 형태 및 사회구조가 자연 환경의 파괴를 가속화 시킨데 있다.(김병길·황금섭, 앞의 글, 9쪽)

12) 김병길·황금섭, 위의 글, 7-13쪽.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¹³⁾라고 하는 증산의 언설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참혹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인간관과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순진리회 대안교육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대안교육의 방향성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Ⅲ. 대순진리회 대안교육의 사상적 배경

1. 해원상생의 교육이념

‘대순사상’으로 대변되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사상은 그 연원을 증산에 두고 있다. 그리고 증산의 사상을 교의체계로 확립한 것은 정산(鼎山 趙哲濟:1895-1958)에 이르러서이다. 정산은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증산의 사상을 계승하여 종지와 신조, 목적¹⁴⁾등을 공표함으로써 증산의 종교사상을 체계화하였다. 증산이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 선경의 도수(度數)를 짜 놓았다면, 정산은 그 도수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신앙적 법제(法制)를 갖추어 놓은 것이다.¹⁵⁾ 이어서 정산에 의해 도전으로 임명됨으로써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한 우당(牛堂 朴漢慶:1917-1996)은 대순진리회를 창설함으로써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진 교의체계를 바탕으로 교학사상의 틀을 완성하였으며, 종단의 3대 기본사업으로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¹⁶⁾등을 계획·추진하여 대순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실현하였다. 우당은

13) 전경, 공사1-3.

14) 종지(宗旨)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

삼요諦(三要諦)···성(誠)·경(敬)·신(信)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정신 개벽(精神開闢)

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 개조(人間改造)

지상 천국 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 개벽(世界開闢) (전경, 교운2-32)

15) 이 해 시월에 도주께서 권 태로(權泰魯)와 몇사람을 이끄시고 모악산의 대원사에 이르시니라. 이 때에 도주께서 『개벽후 후천(後天) 五만년의 도수를 나는 펴고 너는 득도하니 그 아니 좋을시구』라 하시고 이 정물에게 원평 황새마을에 집을 구하여 가족들을 그 곳에 이사 거주하게 하고 자신은 대원사에 몇 달 동안 머무셨도다.(전경, 교운2-11)

16) 구호자선사업으로는 불우이웃돕기, 불우아동돕기, 신체장애자돕기, 이재민돕기, 양로원, 고아원 돕기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새마을사업, 자연보호캠페인, 교통질서 및 거리정화운동, 지역개발사업,

정산이 내놓은 법제의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사상으로만 머물 수 있었던 증산사상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확충하였다. 종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¹⁷⁾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종단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종지 중 하나로써 종지 전체를 대표하는 이념이며 신앙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실천이념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며, 그 주체로서의 인간이 어떤 궁극적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어 취하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태도를 뜻한다.¹⁸⁾ 그러므로 신앙함에 있어 실천은 신앙의 진리를 현실에서 증명해내는 행위이다. 진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숭고하다할지라도 현실에서의 실천이 없다면 이는 말로써 끝나버리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원상생의 실천문제는 진리를 현실에 적용하여 현실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⁹⁾

해원(解冤)은 원을 풀다는 것이다. 해원이념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인간이 품게 되는 욕망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인간의 감정 상태인 원(冤)이다.²⁰⁾ 이는 원의 기저(基底)에는 인간들이 품게 되는 욕망들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원의 발생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욕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원에는 뜻을 이루려는데 외부의 제약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을 한탄하는 자기발생적인 능동적인 원과 자신의 진정성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오해나 누명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수동적인 원,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대상을 원망하여 복수심을 가지게 되

방법활동, 농촌일손돕기, 미아보호운동, 노인잔치 등이 있어 있다. 교육사업으로서는 매년 종단의 세출 과목예산을 절감하여 교육기금을 조성, 1984년에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한 뒤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1992)를 비롯하여 대진고등학교(1985), 대진여고(1989), 분당대진고(1994), 일산대진고(1994), 수서대진디자인고등학교(1996), 부산대진전자정보고(1996) 등을 개교하였다.

17) 증산사상과 대순사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산사상이 증산의 종교사상만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해 대순사상은 정산과 우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종통계승과정을 통해 증산의 종교사상을 교리로서 체계화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순사상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증산의 종교사상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 대안교육의 사상적 배경이라 함은 대안교육의 실천을 전제한 사상적 배경으로써 대안교육이 가지는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증산의 종교사상이 사회적인 실천으로 확장되어 나타나지만, 증산에 있어서의 대안교육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하여 ‘증산’으로 한정할 경우 증산의 종교사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대안교육이라는 용어가 주는 실천적인 측면이 담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단순히 사상적 차원에서 머물게 되는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18)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서울: 문사철, 2012), 14쪽.

19) 『대순지침』에서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가 마음에 배고 몸으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17쪽)라고 함으로써 해원상생의 실천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20) 증산은 (전경, 공사1-3)을 통해 원(冤)이란 인간중심의 감정상태를 의미하는 원(怨)과는 달리 천지인 삼계에 두루 사용되는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교육적 함의를 다루는 이유로 인간에게 집중하여 인간이 품게 되는 정서로서의 원(冤)으로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는 공격적인 원의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기발생적인 능동적인 원에는 긍정적인 욕망으로 풀이되는 서원(瑞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증산은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²¹⁾에서 전명숙의 고사를 인용하여 인간이 지니게 되는 서원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발현될 때에는 복수심, 투쟁 등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현될 때에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궁극적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으로써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품게 되는 궁·부정적 측면의 모든 원들은 결국 풀어져야 하는 어떤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 ‘해원’이념을 핵심이념으로 삼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해원이념은 궁극적으로 ‘상생(相生)’의 후천세상을 지향한다. ‘상생’이라는 단어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사회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화두가 되어버렸다. 상생이 의미하는 바는 분야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만큼 보편적 의미를 탐구하고 공유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대순진리회에서의 상생은 해원과 함께 후천을 지배하는 원리이다. 해원이 원을 푸는 것이라고 할 때, 원을 푸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상생이며, 해원은 상생을 통해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천의 상극지리(相剋之理) 속에서 상호간에 맺혔던 원한이 풀리는 것이 해원이며,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에서 해원과 상생의 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상생을 실천함으로써 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해원과 상생에는 역학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²²⁾ 해원이 역사적으로 누적된 원(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면, 상생은 해원을 통해 그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으로 해원과 상생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대순진리회의 대표적 이념이자 실천이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은 무엇인가? “1.마음을 속이지 말라. 2.언덕을 잘 가지라. 3.척을 짓지 말라. 4.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남을 잘되게 하라.”의 다섯 가지 ‘훈회’가 그것이다. 해원상생을 실천함에 있어서 훈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 자세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훈회는 증산의 가르침에 입각한 것으로 훈회를 실천한다는 것은 증산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의 원리가 담겨져

21) 전경, 교법1-2.

22) “해원(解冤)은 척(慼)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대순진리회 교무부, 앞의 책, 27쪽)

있는 훈회는 일상에서 삶에 임하는 자세를 규정짓는 것이기도 하므로 실천하는 생활화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순진리회의 대표이념이자 실천이념인 해원상생은 교육이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은 증산이 바라보는 현실관에서부터 출발한다.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이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²³⁾

증산이 진단한 현실은 ‘상극이 지배하는 참혹한 세상’이다. 그러므로 뜯어고쳐야 하는 세상이다.²⁴⁾ 이러한 종교적 현실진단은 종교사상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과 사회상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다시 교육이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이 전부가 되었으며,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은 대기업 취업과 고액연봉이라는 등식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성적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며, 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탈할 경우, 학교폭력, 교실붕괴 등을 양산하는 이탈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심각한 스트레스와 상호 갈등을 야기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로 하여금 심신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만들고 있으며, 성적지상주의와 서열주의는 사회로 확장되어 대학과 직장을 다시금 서열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²⁵⁾라는 증산의 언설은 인간과 세상을 향해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입시위주의 성적지상주의 교육은 내가 출세하여 부와 명예를 움켜잡기 위해서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철저한 경쟁의식과 타 존재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출세지상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질서와 생존은 무시한 채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는, 다른 생명체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인간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교육이 상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나아가 타 생명체와 자연을 훼손하는 등 상극을 조장했다면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은 이에 대한 해소, 즉 해원을 주장하며 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으로써의 훈회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의 바람직한 인간이란 인간뿐

23) 전경, 예시8.

24)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민생을 건지려고 하노라(전경, 공사1-3)

25) 전경, 교법1-1.

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자연계의 생명까지 존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소유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남을 이기기 위한 교육이며,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다. 지금의 교육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교육이며, 자연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한다는 교육의 본질은 사라진 듯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남을 이기기 위해 상극을 조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교육으로 변화해야 하며,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딛고 일어섬의 대상이 되었던 불특정 다수의 원이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모색되는 새로운 교육이 대안교육이라면 김병길·황금섭이 대안의 범주화작업의 일환으로 앞서 제시했던 ‘생태주의 패러다임’과 ‘독자적 패러다임’은 해원상생의 교육이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멸망’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해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며 자연과 인간이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은 ‘맺혀있던 원을 풀고 서로 상생한다’는 해원상생의 이념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은 대립과 갈등 관계에서의 교육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통해 함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의 건설을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해원상생은 교육의 장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교육이념인 것이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교육의 장에서, 교육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을 잘 해결하여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교육을 지향하려면 상호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맺혔던 원을 풀고 서로 상생한다는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윤리규범이자 실천이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인적 인격교육으로서의 인존사상

교육은 ‘인간형성의 계속적인 과정’으로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간 삶의 한 양식이며, 인간의 발달을 지향하고, 인간 개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적 삶에 전체적으로 관계된다. 이러한 교육은 인간에 대한 신념과 발전적 변화에 대한 신념 및 계획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한다.²⁶⁾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교육목적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피교육자에게 내재되어 있

26) 오만록, 『교육학개론』(서울: 형설출판사, 2005), 50-52쪽.

는 능력을 이끌어내 원숙한 인간으로의 변모를 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는 단순히 나의 완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타인의 완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인간형성 과정인 교육이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전인교육, 특히 전인적 인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식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지엽적인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일류만을 고집하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육의 현실에서 전인적 인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인적 인격교육의 측면에서 어떤 분야보다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가 종교교육이다.

증산은 인간존재를 ‘선령신(先靈神)들이 육십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공을 쌓아서 하늘로부터 얻어낸 존재’²⁷⁾라 명명하고 있다.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상 선령신들, 즉 천계(신명계)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사람을 낳고 쓴다고 밝히고 있다.²⁸⁾ 이와 함께 세속적 지식과 재리에만 어두워지는 인간에서 탈피하여 천·지·인 삼계의 이법에 따라서 생을 영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인간상이 도덕군자, 진인(眞人), 신인(神人)이요, ‘하늘사람’이라고 일컫는 인간상이니 이것이 ‘인존’의 인간 관념이다. ‘후천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한다는 이러한 인존관은 내재적 본래 심성을 회복하는 인간상으로 대순사상에 있어서 교육이념을 설정하는 기저가 된다.²⁹⁾

증산은 ‘인존’을 통하여 새로운 우주관과 함께 인간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명제를 강조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³⁰⁾

인존은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간을 존중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인존은 인간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천·지·인 삼계의 전체구조 속에서 인간이 자기완성을 통하여 삼계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인간상이다. 자기완성이란 스스로의 진지한 노력을 바탕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증산은 “정심(正心)으로 수련하라”³¹⁾고 하여 바른 마음가짐으로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하여 자기완성을 이룰 것과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완성해가는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³²⁾

27)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전경, 교법 2-36)

28) 天地生人用人(전경, 교법 3-47)

29)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65쪽.

30) 전경, 교법 2-56.

31) 전경, 공사2-16.

인존의 실현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별개의 생활형태가 아니라 궁극의 삶을 지향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동시통합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며, 개개인이 지니는 존엄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존사상을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해보면, 인존사상은 학생을 단순히 교육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지니는 존엄성을 존중하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학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존사상은 교육의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해원상생과 인존사상을 근거로 대순진리회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대안학교 설립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Ⅳ. 대순진리회의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제언

1.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설립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인류사회의 조직과 문화 발달의 역사와 비례한다. 특히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복잡하게 변화·발전하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곧 학교교육이다.³²⁾

파슨스(Parsons)는 학교교육의 기능을 첫째, 유형유지의 기능, 둘째, 사회적응의 기능, 셋째, 사회창조의 기능, 넷째, 통합의 기능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³⁴⁾ 학교교육이 파슨스의 주장처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순기능적인 측면의 것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역기능의 측면 또한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교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지식과 기능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에는 물론, 개인적 요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의 교육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을 확립시키

32) 김영주, 『중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의 해석문제』, 『종교문화연구』제18호(한신대학교 종교외문화연구소, 2012), 165쪽.

33) 손영환·권미량, 『교육학개론』(서울: 창지사, 2009), 27쪽.

34) 오만록, 앞의 책, 596쪽.

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 및 건전한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3대 중요사업 중 하나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경건·신념의 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84년 2월 6일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1년 11월 15일 대진대학교 설립인가 후 1992년 3월 13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대진대학교 외 6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안교육기관설립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대안학교설립에 대한 시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대안학교설립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중산의 언설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안학교를 언급한 문헌적 전거는 찾기가 힘들다. 다만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관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³⁵⁾

대순진리회는 3대 중요사업 중 하나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대학교와 다수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고교 역시 일반계 고교로써 현 입시교육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교육은 행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서 논의 한 해원상생의 교육이념과 인존사상에 입각한 대안학교의 설립이 요청된다.

둘째, 학생 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대안학교는 현행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교육이념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성적지상주의, 비인간화의 문제를 낳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되는 대안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10-15명 정도로 유지한다. 교사와 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들간 상호활동의 증진을 통한 열린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크게 국민공통기본교과와 특성화교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교육한다.

대순진리회 대안학교는 기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세상과 호흡하고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전인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일반교과과정 이외에 체육활동, 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35) 전경, 교운1-17.

시행하며, 세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거주 외국인인 1,354,414명으로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³⁶⁾ 한국의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새터민 등의 대량 유입으로 한국사회의 인종, 문화, 언어 및 종교적 다양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는 국제결혼과 탈북 새터민, 이주재외교포 등을 통틀어서 ‘다문화가정’이라 명명하여, 다양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국제결혼가정, 새터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한국전통문화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과연 다문화교육을 소수자인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가 그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소수집단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시각에 대한 극복 없이 단순히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만을 통해 이들을 한국사회에 흡수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은 다문화사회이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차별을 통한 경계지음은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해원이며, 이는 상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존사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인 한국사회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소수집단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이상이 각 구성원들간의 평화적 공존과 사회통합에 있기 때문이다.

대안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다. 다문화교육은 획일적이고 자민족·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지식과 가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다양한 문화내용을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반영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방적이고도 유연한 교육적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건강한 교양인,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³⁷⁾

첫째,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날로 증대되는 사회의 다원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36)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92쪽.

37) 차윤경,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교육모델로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연구』제1권1호(서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08), 15-16쪽.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이질적인 문화를 관통하는 보다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와 가치들(예컨대, 민주주의, 인권, 평등, 사회정의, 세계시민의식 등)을 강조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통합교육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 인종, 민족, 종교, 언어, 성별, 계층, 성적취향, 장애여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고귀한 인간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가정은 현대 세계사회의 핵심적인 문화원리 중 하나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을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차이’와 ‘차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다문화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를 배양하는 데 있다. 다양성과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다양성과 차이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성찰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를 통해 상호이해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가 설립한 대안학교일지라도 대순진리회의 교리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제 종교에 대한 학습을 통해 특정 종교를 신앙하는 신앙적 종교교육이 아닌 교양인으로서 숙지할 수 있는 객관적 교양수준의 종교학적 종교교육을 진행한다. 종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지양하여 성숙된 문화인, 교양인, 세계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동식물 체험활동과 환경보호 활동 등의 자연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요구되어진다.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함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안학교에서의 교사상

1) 교사의 자질

교사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중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호칭하는 말이다. 교사의 법적 용어는 교원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일하는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로써, 가르침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며, 행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행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³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자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능력을 이끌어내어 학습자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

38) 한국교원교육학회 편, 『교직과 교사』(서울: 학지사, 2007), 17-19쪽.

의 자질은 교육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자질이란 교사가 인격적 특성으로 구비해야 할 조건 및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발해야 할 일반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³⁹⁾ 비교적 영속성 있는 것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 특성 및 교직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⁴⁰⁾ 또한 교사의 행동으로 직접 표현되는 정도와 관련하여,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는 ‘교과지식 및 수업기술’, 행동과 관련되는 내적특성으로 ‘가치관 및 태도, 인성 및 품성’ 그리고 중간에 위치하는 ‘일반적 능력과 심체(心體)적 건강’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⁴¹⁾ 그러나 교원의 자질은 교원의 역할과 교육관, 교육연구방법,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짓는 것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교원의 자질은 정확하고 만족스럽게 정의할 수도 없고,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표준화하는 것은 어렵다.”⁴²⁾라고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섬머힐의 설립자인 Neill이 “나는 교사로서 분류되기를 거부한다. 교사가 실제로 주석으로 만든 신상과 얼마나 유사한 지를 생각해 보라. 사태의 중심에 서서 명령을 하고 복종을 요구하며 정의를 판정하고 모든 이야기를 거의 독점한다.”⁴³⁾라고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이 제기되고 앞으로도 제기되어질 교사의 자질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소통이 없이는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학생 내면에 있는 잠재된 능력들을 이끌어내 사회에 역할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들겠다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대순진리회 대안학교에서의 교사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의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코칭기술’이 될 수 있으며, 교사상과 관련해서는 ‘코치형 교사’라고도 명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2) 코치형 교사

우리는 코치라는 용어에 아주 익숙하다. 스포츠 관련 경기를 보다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코치이기 때문이다.⁴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포츠 코치는 직접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도해서 선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코치는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방법

39) 손영환·권미량(2009), 앞의 책, 37쪽.

40) 김기태·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2003), 116쪽.

41) 한국교원교육학회 편, 앞의 책, 59쪽.

42) Field, B., Field, T., *Teacher as Mentors : A Practical Guide*(London : The Falmer Press, 1994), p.25(김기태·조평호, 앞의 책, 117쪽 재인용)

43) Neill, A.S., *Summerhill school: A new view of childhood*, (NY: St. Martin's Press., 1992), p.101.

44) 감독 역시 코치로 표현가능하다. 감독의 경우 ‘head coach’로 명기되고 있다.

을 알려주고 길을 터주는 일종의 도우미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⁴⁵⁾ 스포츠 코치는 자기 팀의 선수를 코칭할 때, 해당 선수가 반드시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코칭한다. 실제 코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수를 코칭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역량은 많이 달라지게 된다. 코치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숨겨진 잠재력’이란 말에는 사람의 내면에는 나타난 능력보다 나타나지 않은 능력이 더 많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⁴⁶⁾ 코칭은 삶에서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 안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⁴⁷⁾ 그렇기 때문에 만일 코치가 사람들이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코치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고객(client)⁴⁸⁾에 대한 믿음과 경청의 자세이다.

코치는 고객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고객이 잘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코칭이라는 행위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이 스스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누구나 지금 현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한 해답은 고객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코치인 것이다.⁴⁹⁾

교사의 존재도 코치와 흡사하다. 학생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숨겨진 잠재력을 외부로 이끌어내 학생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이다. 교사의 기본 메시지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수업은 자유에 대한 부름(call)으로, 교사의 기본원리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⁵⁰⁾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무엇보다도 학생에 대한 믿음과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는 - 특히 인문계 고교 - 실제로 행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입시성적의 중압감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코치로서의 교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순진리회 대안학교에서 코치형 교사의 등장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코치형

45) 김종명 외 3인, 『코칭 방정식』(서울: 정우서적, 2012), 15-16쪽.

46) 존 휘트모어/김영순 역, 『성과향상을 위한 코칭리더십』(서울: 김영사, 2008), 23쪽.

47) 정진우, 『코칭리더십』(경기고양: 아시아코치센터, 2008), 17쪽.

48) 코칭에서는 코칭을 받는 사람을 고객(Client)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코치이(Coachee)라고 불렀지만, 코치(Coach)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여 국제코치연맹에서 고객(Client)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객을 피코치자(被Coach者)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영어와 한자의 어색한 조합이라 권장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고객(Client)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김종명 외 3인, 앞의 책, 32쪽)

49) 김종명 외 3인, 위의 책, 45쪽.

50) Ayers, W.(2003), *On the side of the child: Summerhill revisited*, NY: Teachers College Press. (조영남, 『대안교육의 상징 Summerhill탐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제22권 1호(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6), 150쪽 재인용.)

교사의 존재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순진리회 대안학교에서의 교사는 해원 상생의 교육이념과 인존사상에 입각한 코치형 교사이다. 교사에게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 배려와 신뢰가 요구된다.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 배려와 신뢰는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순진리회 대안학교의 교사에게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誠)·경(敬)·신(信)의 자세가 요구된다.

증산은 ‘성심’이라는 용어를 통해 ‘성’을 설명하고 있다.⁵¹⁾ 성은 늘 끊임없고 조밀하며,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스스로의 마음이 정한 바를 진실되게 실천하는 자세를 이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모든 일이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 사람 기르기가 누에 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⁵²⁾라고 한 증산의 언설처럼 항상 쉽 없고 끊임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의 입시교육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단기간의 성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경’은 초월적 신격 앞에 선 인간이 느끼게 되는 외경의 자세를 의미한다.⁵³⁾ 이러한 외경의 심정은 일상생활로 확장되어 인간관계의 실천개념인 공경(恭敬)의 심정으로 표현된다.⁵⁴⁾

경의 실천 개념인 공경은 올바른 언행과 처사에 모범을 보이는 태도를 통해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단순히 초월성을 견지한 절대자에 대한 외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입시교육이 전부가 되어버린 현재의 학교교육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육을 이야기 하는 대안학교에서의 교사는 학생을 대함에 있어,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견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전인적 교육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이다.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형

51)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이다. 만일 받지 못한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전경, 교법2-37)

52) 전경, 교법2-24.

53) 김 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리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 하느냐」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다.(전경, 교운1-23)

54)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전경, 교법1-10)

성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며, 실천을 위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⁵⁵⁾라는 증산의 언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회복은 불신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점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믿음과 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산은 “믿기를 활을 다루듯이 하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여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⁵⁶⁾라고 하여 믿음을 행함에 있어 성급함을 멀리하고 점진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한다. 대안학교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통해 학생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내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교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춘무인(春無仁)이면 추무의(秋無義)라.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⁵⁷⁾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 교사가 지니게 되는 점진적인 믿음의 자세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를 신뢰하고 스스로가 한 약속에 대해 신용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치형 교사는 학생과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하늘을 섬기듯이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성·경·신의 자세를 견지한 교사이다. 성심으로 소통하고, 학생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해원이며, 상생인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존사상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비유해서 ‘하얀색 도화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어떤 색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그림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였다.⁵⁸⁾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정신적인 측면, 즉 마음에 각인되어 그것이 청년기, 성인기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V. 결 론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교육이 백년 후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 백년 후를 희망한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기능만을 키우는 교육이 된다면 우리는 백년 후에 대한 희망

55) 전경, 교법1-5.

56) 전경, 교법2-35.

57) 전경, 교법2-45.

58) 스티븐 핑거 저/김한영 역, 『빈서관』(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4), 8쪽.

을 걸 수 없게 된다. 아니, 포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백년 후를 희망하며 교육에 그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교육의 주도권을 넘겨준 지 오래이며, 사교육시장의 경제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고 있다. 기현상임에 틀림없다.

대안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실천운동이다.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한 고민을 통해 묻고, 그러한 가치에 기초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소망이 묻어나는 교육운동이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순진리회에서는 대안교육이라고 할 만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대순진리회 대안교육의 시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글을 전개하였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꾀하는 작용이다. 그러나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은 좋은 대학 = 좋은 직장 = 고액연봉이라는 등식 속에서 결국에는 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한 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이 변질되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대안은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의 실천과 인존사상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이며, 이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적과 출세지향주의 교육으로 인해 매몰되어 가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파괴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자연과 다른 생명체에 대하여 존중하고 감사하는 교육을 해원상생의 교육이념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존사상을 교육현장에 적용시켜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신뢰와 사랑, 배려가 전제된 수평적 관계의 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 개개인이 지니는 존엄성을 인정하며, 학생 개개인을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뒤에는 또 다른 능력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교사가 있다는 뜻이다. 교사가 다음 세대의 성공을 위해 학생을 교육했다는 의미이다. 교사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는 다음 세대의 성공이 아닐까? ‘청출어람’을 곱씹게 된다. “교육은 처음부터 홀리스틱 교육이었다. 대안교육이란 것은 없었다.”⁵⁹⁾라는 말은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59) 오인탁, 홀리스틱교육과 대안교육, 2007년도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쪽.

참고문헌

『전경』

고병헌(1997), 「교육개혁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운동」, 『처음처럼』(통권 제4호),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김기태 ·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교육과학사, 2003.

김명신, 『대안교육』, 서울:문음사, 2003.

김병길 · 황금섭, 「대안교육에 있어서 ‘대안’의 범주화」, 『교육철학』제19집, 한국교육철학회, 2001.

김영주, 「중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의 해석문제」, 『종교문화연구』제18호,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2.

김종명 외 3인, 『코칭 방정식』, 서울: 정우서적, 201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내일을 여는책, 1997.

손영환 · 권미량, 『교육학개론』, 서울: 창지사, 2009.

오만록, 『교육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5.

오인탁, 홀리스틱교육과 대안교육, 2007년도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이병환, 「한국 대안학교의 특성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병환 · 김영순, 『대안교육의 실천과 모색』, 서울: 학지사, 2009.

이종태, 「대안교육의 철학적 기초 탐색(1):생태주의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제26권 제1호, 1999.

정유성,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정진우, 『코칭리더십』, 경기고양:아시아코치센터, 2008.

조영남, 「대안교육의 상징 Summerhill탐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제22권 1호,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6

차윤경,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교육모델로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연구』제1권1호, 서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08.

한국교원교육학회 편, 『교직과 교사』, 서울: 학지사, 200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편,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0.

스티븐 핑거 저/김한영 역, 『빈서판』,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4.

존 휘트모어/김영순 역, 『성과향상을 위한 코칭리더십』, 서울: 김영사, 2008.

Neill, A.S., *Summerhill school: A new view of childhood*, NY: St.Martin's Press., 1992.

원고접수 : 2013년 1월 13일 / 1차 심사 : 2월 4일 / 게재승인일 : 2월 8일

연구자소개 : 김영주

① 전공 : 한국신종교(대순종학), 한국근대철학 / 소속 :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근대철학

③ 주요논저 : 「大巡思想의 解冤理念 研究」, 「天地公事와 解冤理念에 관한 一考」, 「茶山 丁若鏞의 上帝天觀에 관한 研究」,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 「다산 공부론에 있어서 주체성 확보문제」, 「대순사상의 지상신선실현과 수행실천에 관한 연구」,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의 해석문제」.

④ E-mail : eureka0304@naver.com

Abstract

An Alternative Education for Daesoon-Jinrihoi

Kim, Yeongjoo

Daejin University

It is said that a human can be endlessly changed through education. Especially, the teens who has a great potential to accept anything through the education is an critical phase in human being. From this point, if a human can be grown and changed through education, the education should be a big issue for the growing possibility of human.

Thus, it has been a big issue to stop a standardized and distorted education, and to pursue a real education in the field. The first resolution for the statement above is in an alternative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what an alternative education for Daesoon-Jinrihoi is and what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education is. In addition, the paper suggests some of thing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lternative school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an alternative education for Daesoonjinrihoi is rooted on the ideology like Haewonsangsaeng and Injon.

Haewonsangsaeng, as one of ideological essentials of Dasoonjinrihoi has a symbolic meaning to represent it and also it should be a code of conduct that all of the Daesoonjinrihoi devotee should follow.

Haewonsangsaeng makes it possible to establish the better educational surroundings because it influence on the educational notion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n this point, Haewonsangsaeng could be an educational notion to be activa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Injon, as a view of the universe means an ideal human to have a leading role in chon, ji and in through the self-perfection. Jeungsan emphasized the proposition to change human's mind-set with the new view of the universe.

Applying the ideology of Injon on the field of education, the students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subject of the education but they should be respected and have a great

attention and lov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think them as an human having a dignity.

If the an alternative school based 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like Haewonsangseng and Injon is established, the school could be an institution which consists of a class having small number of students and has a coaching teacher to activate the ideal educational program.

Key words : Daesoonjinrihoi, alternative education, Haewonsangsaeng, Injon, Multi-cultural education, Coaching teacher.